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

롬 6:15~19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자녀라면 죄가 여러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기가 되라

특별히 세 번째 주셨던 말씀, 우리들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기 전에, 사탄이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의사, 모든 지체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다면 그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습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계속 고민만 합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자에 대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헌신하고 결심하면 쉬워집니다. 우리의 고민은 결단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마귀를 멸하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쓰이는 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장을 노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전기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관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전쟁을 하면 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전쟁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공격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듣고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무기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들보다도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능력 있는,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지체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13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19절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드려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몸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흑인 노예제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일이었습니까? 동양에서도 임금과 종의 관계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종이란 평생 동안 주인의 물건으로, 소유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죽을 때 산 채로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개념 중에 우리나라에 ‘머슴’이라는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머슴은 보수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숙명론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없습니다. 야단맞기 일쑤고 온갖 궂은일을 다 해야 합니다. 잠도 헛간 같은 곳에서 자야하고 웃도 많지 못합니다. 머슴은 고민해서도 안 되고 괴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대대로 충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주인이 작은 보상을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다.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하고 외로워도 혼자 외로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 사는 것이 보통 머슴들의 삶입니다. 주인이 내 쫓아도 갈 수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머슴에게서는 종과는 다른 가슴 뭉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이 아니고 주인처럼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슴에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다가 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머슴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머슴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를 따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를 따집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머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도 인정도 없는 것입니다. 대가도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네 몸이 하나님이 쓰는 의의 병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네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들은 억지로 종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좋아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종 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법이란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규범입니다. 사람들은 학교에 가야하고 군대를 가야하고 세금을 내야하고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를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학교에 빠져보고 싶은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기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자는 것 뿐이지 사실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서태지를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배웠습니다. 서태지가 은퇴를 한단니까 학생들이 난리법석입니다.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우성을 치며 서태지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야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손해보고 당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 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 용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죄를 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다른 선택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다시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싫건 좋건 그것은 이미 지나간 길이에요 이제는 한 길을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못 들어옵니다. 선언하지 않으면 죄가 슬금 슬금 들어옵니다. 유혹의 손길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하면 그 결과는 사망일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의 종이 되었다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패나 마약 조직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하며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17,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
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내가 전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귀가 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내 눈, 코, 입, 귀,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연예인 교회를 섬기던 때가 생각납니다. 7년 동안 연예인들을 만나면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분은 목사가 된 광규
석 집사였습니다. 그분을 장로로 안수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구봉서 장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좌절, 실의, 자살 가운데서 주님께
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 성도들은 마스카
라를 하지 않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던 그 아름다운 추
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 거룩과 순결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
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전도
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훈장을 달 수 있습니다. 집사, 장로, 선교사, 위
원장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을 전하지만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지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라”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소유욕,
지배욕, 과시욕이 둔감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외적

인 기적과 성장과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의 내면의 본질을 등한시하기 쉽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온누리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한가가 중요합니다. 정직한가, 진실한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포기한다는 것,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용기라고 보기 보다는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 이것은 말은 좋아 보이지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 몸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내 영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삶,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내 내면의 속 사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내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거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